



4. MusicVAE 관련 나의 생각.

목표: Music VAE Paper를 살펴보고 나서 느낀 나의 생각

1. 이 논문에서는 서양의 대중음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하였다. 서양의 대중 음악과 달리 **국악**은(ex. 해금, 가야금..) 음과 **음의 연결이 곧게 이어지지 않고 흘러거나 밀어올리고** 1박자를 3분박하거나 2분박으로 구분할 때도 있는 것처럼 **변화가 심한 것**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계층적 순환 디코더를 이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고 새로운 음악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.
 - 어렵다는 건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실제로도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? 생각한다. 벌써 구현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...?
2. **Interpolation(보간)**이란 두 개 이상의 시퀀스 사이에서 중간 값을 추정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용하면 서로 다른 키를 가진 음원을 연결시켜 **전조**라는 과정을 만들고 싶을 때 **가장 매끄러운 패턴의 값을 도출**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다.
3. 이번 과제를 하기 전 장르별 Top 100 안에 들어간 곡들의 화음 구성을 분석(통계)하여 새로운 곡 작업이 들어갔을 때 **코러스 팀에게 가장 최적의 코러스 파트를 제시**해줄 수 있는 코러스 세션 돕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MusicVAE를 이용해서 접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됐다.

